

# 민주 호남 최고위원 나올까... 민형배·이성운·박병규 출마

### 당 대표 이재명 단독 출마 분위기에 최고위원 경선 관심 증폭 후보군만 10여명 넘어... 표 분산 우려속 호남 정치인 당선 관심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경선에 호남 정치인이 대거 출마하면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호남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남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8월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광주의 민형배(광산을) 의원, 전북의 이성운(전주을) 의원,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현재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재선 강건우·김병주·한준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4명이다.

김민석(4선)·전현희(3선) 의원이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현직 의원만 8명에 달한다. 이 밖에 김지호 부대변인,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이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최고위원 경선이 더욱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위원 후보군이 10명을 훌쩍 넘어가면서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그나마 전당대회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으로 8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른다.

민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과 광주시 당위원장 출마 대신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저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모두가 흔쾌하게 동

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고위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호남 정치 복원과 정권 재탈환을 위해 광주답게 싸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 정치가 과거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많다"면서 "호남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중앙정치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제대로 반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최근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지도부 관계자에게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경장도 오는 7일 경제 관련 출판 사인회를 계기로 최고위원 출마를 막바지 고심중이다.

이처럼 호남 정치인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면서 호남 표 분산에 따른 불이익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천명' 주자이기 때문에 호남의 분열은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전남과 전북 정치권이 내부 조율을 통해 최고위원을 준비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이 같은 관행이 사라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호남에서 3명이 경쟁을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승리를 장담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다"면서 "내부 조율을 통해 단일화 등도 예측되지만 출마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 단일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광주·전남지역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잇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했지만 지역 분열과 '천명' (천 이재명) 주자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탓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채상병 죽음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지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단체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이르면 10월 선고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되면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면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서증조사를 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

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포함해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도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연합뉴스

## 민주 당대표 예비경선, 권리당원 투표 40%→56%로

### 전준위, 영향력 대폭 확대... 단독 입후보 선출방식은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0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8·18 전당대회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5%를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원은 50%, 국민 여론조사는 25%다. 기존에는 중앙위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였다. 본경선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다. 기존의 대의원 30%, 권리당원 40%와 비교해 권리당원 비중이 커졌다.

이로써 이번 전당대회의 대의원 대 권리당원 반영 비율은 19.9대 1로 확정됐다.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예비경선은 다음 달 14일이다.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4명 이상, 9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통해 이를 3명, 8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하면 지역별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당은 지역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순회경선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추경호, 닷새만에 국힘 원내대표 복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 닷새 만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복제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

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 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철거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등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